

“불황에 훌쩍해진 장바구니...덜 담고 싼 제품 고른다”

오프라인 구매 늘었지만 물가 부담에 구매 금액은 줄어 식료품 제외 매출 감소...“경기침체기 전형적 소비 현상”

직장인 김모(37)씨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 빈도가 늘었다. 그러나 쇼핑 횟수에 비해 구매하는 품목이나 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다.

김씨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재미가 다시 생겼지만, 물가 부담에 구매하는 금액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오프라인 유통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증가했으나, 회당 구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건수는 연중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부분의 구매 건수는 적게는 3.9%(7월)부터 많게는 13.1%(2월)까지 매달 빠짐없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본격적인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이 늘어난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1회 구매 시 장바구니에 담은 금액을 뜻하는 구매단가는 9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구매단가는 1월에 5.6%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난 8월에도 6.7% 감소했다.

7월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9월에는 1.2%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지난해보다 20여일가량 늦어 9월 한 달간 특수를 누린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9월의 성장률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했는데도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은 금액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식료품 등 꼭 필요한 상품에만 지갑을 열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만 장바구니에 담았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는 식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군의 매출이 대부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9월 기준으로 가전·문화(-13.1%), 의류(-11.5%), 스포츠(-10.4%), 잡화(-7.3%) 등 비식품군 매출이 대부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었고 식품(17.9%)만 추석 특수에 힘입어 간신히 성장세를 유지했다.

가전·문화 상품군 매출 증감률은 지난 5월(1.8%)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의류나 가정·생활, 잡화 상품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소한 달이 더 많았다.

업계 내에선 소비자들이 마트를 방문해서도 꼭 필요한 물건만 담고 소비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백화점에서는 지난해 성장을 뒷받침하던 해외명품 등 고가제품 매출 저조 현상이 두드러졌다.

9월 기준으로 잡화(-0.2%), 여성정장(-7.5%), 여성캐주얼(-1.3%), 남성의류(-11.4%), 아동·스포츠(-4.3%), 해외유명브랜드(-3.5%) 등의 매출

이 모두 감소했고 가정용품(6%)과 식품(35.1%) 매출만 늘었다.

지난해 두 자릿수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올해 1~4%대 성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형슈퍼마켓에서도 비식품 제품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고, 식품과 비식품 매출이 고르게 성장한 것은 편의점뿐이었다.

다만 편의점의 분기 매출 증가율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비 자체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템만 자주 구매하는 대신 전체적인 장바구니 사이즈(크기)가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10일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과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강진군 성전면 대파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봉사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수협 전남본부 행복봉사단,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우리바다 살리기 캠페인 홍보도

수협 전남본부(본부장 주홍보)는 지난 9일 무안 현경면 곡지어촌계를 찾아 해양 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진>

수협 전남본부는 목포수협, 곡지어촌계, 남부대학교와 함께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작업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어업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정책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어업인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홍보 본부장은 특히 “금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남부대학교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학계는 물론 산업계로 봉사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안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본부 행복봉사단 해안 정화 활동은 우리바다 살리기 캠페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남지역 낙도벽지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4년 만에 7배 증가

회수 불능 금액 매년 증가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회생 또는 파산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지난해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1년 전(118억62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 4년 전보다 5.8배 각각 늘어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은 역시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2218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679명)과 견주면 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로 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5400만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광주대와 영농지원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0일 강진군 성전면 일대에서 광주대학교 대학생과 교직원 등 40명과 영농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농활동은 강진농협 농촌인력증가센터 중개로 마련됐으며, 봉사자들은 성전면 일대 1200평에 이르는 대파 생산 비닐하우스에서 제조작업을 펼쳤다.

한편 전남농협은 작년 11월 광주대학교, (사)도농상생운동본부와의 대학생 농촌봉사시간 학점인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전남 관내에서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 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주대 재학생들은 봉사과목에 봉사시간(6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박종탁 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현장 수업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장배추 주산지 수급전망 현장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3일 오후 2시 해남 화원농협 김치공장 회의실에서 김장배추 주산지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농업관측센터는 2023년 소비자 김장배추 조사 결과와 김장배추 주산지 수급 전망, 화원농협은 관내 배추 재배 및 김치생산 현황에 대

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정민국 센터장 주재로 김장배추 수급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화원농협의 김복철 조합장, 전남도청 정상욱 팀장, 김장배추 주산지 대표 농가 등이 참여한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